

# MY WONDERLAND

January , 2017 | 백지연, 황선우

page 1 of 7



# MY WOND ER LAND

높고 위태로운 난간에서 화난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소녀,  
설치 미술가 김기라는 오랜 시간 각인된 그녀의 이미지를 비틀어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시선과 조우하도록 했다. 이것은 배우 안소희의 또 다른 자아이다.

photographs by KIM YEONG JUN



Beauty note

새미 매트 파니시를 연출하는 디올스킨 포에버 플루이드 파운데이션(010)으로 피부 결질을 커버한 후, 디올스킨 포에버 퍼펙트 쿠션(110)을 레이아웃해 모공과 피문경을 매끄럽게 정리했다. 디올스킨 누드 에어 컬러 그라디앙(002 레터앳트 누드)의 진한 컬러를 옆 광대에 살짝 찍어주고 밝은 컬러는 이마, 코, 턱 안쪽 물에 가볍게 터치해 얼굴 윤곽을 살렸다. 눈에는 컬러 그라디앙 팔레트(002 코랄 그라디앙)의 가장 진한 컬러인 브라운부터 아이라인을 따라 바른 다음, 선명한 코랄, 후더 노란빛이 도는 오렌지, 밝은 코랄 순으로 그라데이션해 연출한다. 언더라인을 선명한 코랄 컬러로 채우고 눈꼬리 주변으로 갈수록 살짝하게 바지는 느낌으로 바르는 연출을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다. 립의 포인트가 될 실용을 두 가지 컬러로 구성한 루즈 그라디앙(755 레드)을 이용해 통일적인 표현했다. 립라인을 따라 레드 컬러를 먼저 바른 후, 코랄 컬러로 입술 안쪽부터 특히 두드러지면서 풍성이듯 그라데이션해 마무리했다. 모두 Dior 제품.

가슴 부분의 귀퉁이 장식에 돋보이는 터틀넥 니트 플로버는 Dior 제품.



김기라  
Egoist on the Border(2016)  
3D 프린트 조각 인스톨레이션  
33×150×40cm



강렬하면서도 소녀적인 느낌을  
주는 세발간 시스루 드레스와 니트  
소재 타이츠, 스티드 장식 슈즈는  
모두 **Valentino** 제품.  
빨간 보라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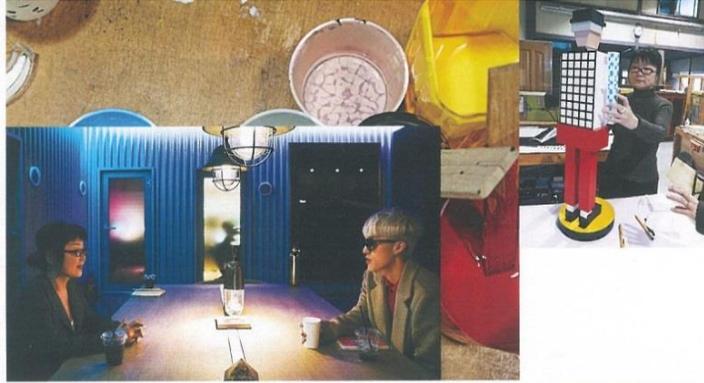


일회용이 독특한 새빨간 롱 드레스는  
DKNY 제품 안에 입은 검은색  
보디슈트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촬영에 스타드가 박힌 구조적인  
다차원의 공간에 종종 프리 박과 얽은  
행렬 스트랩이 어필스러운 세련 소재의  
슈즈는 Jimmy Choo, 시스루 들은  
Rochas by Mue, 스키니한 핏의  
팬츠는 The Row by Mue 제품.

픽션 에디터 | 박민욱  
피지 에디터 | 홍혜은  
뷰티 에디터 | 김다혜  
스타일리스트 | 남주희  
헤어 | 박종민  
메이크업 | 오윤희(재민(성우))  
세트 스타일리스트 | 유영경  
어시스턴트 | 홍수민



### 자이언티 + 홍승혜

더블유아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같이 작업하고 싶은 셀레브리티를 먼저 지명한 미술가는 홍승혜 작가가 유일했다. 그 인물은 바로 자이언티. 대개의 아티스트들처럼 연예인에 대해 잘 모른다며 말하는 그지만 자이언티에게 예외적인 호기심을 가진 당연하게도 음악 때문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들게 된 '양화대교'는 단숨에 인생의 어떤 장면을 펼쳐 놓았고, 노래를 들으며 정서적으로까지 움직이는 경험은 대중가요 기사에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었다. 삶의 페이스를 압축하면서도 경쾌한 리듬과 멜로디의 균형감을 잃지 않는 이 뮤직션은 아티스트 홍승혜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로 기억되었다. 진중하지만 간결하고, 심도있게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아트, 자이언티가 새 앨범 녹음을 위해 연이어 받을 새우면 가을의 어느 날, 지장을 할까가는 늦은 시간에 당일동 블랙 레이블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만남은 분야를 뛰어넘은 예술가들이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우정 어린 교류의 자리가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알수록 팬이 되어간다는 사실은, 프로젝트 전체에 좋은 동력이 되어주었다.

"도시의 이미지를 좋아해요. 60년대 뉴욕을 특히 동경하고요, 커다란 슈트를 입은 흑인들, 벚꽃 벚과 창문이 이루는 격자의 풍경, 거리 속으로 스며드는 재즈의 담배..." 자이언티는 자신을 구성하는 취향에 대해 털어놓았고, 홍승혜 작가는 들으며 종종 끄덕이거나 낭랑하게 깔깔 웃거나 했다. 사실 컴퓨터로 형상을 단순화해 픽셀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는 이 아티스트가 자이언티를 어떻게 미분시켜버릴지는 에디터를 전전긍긍 고심하게 만든 걱정거리기도 했다. 디테일이 다 축소된 사람 모양의 픽토그램이 달랑 하나 반쯤할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어쨌거나 인물을 반영한 조각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는 드러나지 않는 결과물이 될 수도 있었으나, 한편 작가들은 서로 열 팀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은근히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평소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홍승혜 작가가 자이언티와 짝을 이뤘다는 소식을 접한 권오상 작가는 이런 평언을 남겼다. "홍 선생님이 점을 하나 찍어놓고 자이언티라고 제목을 붙이면 정말 멋지겠는데요?"

다행히 하나의 점 대신 두 개의 원이 중심이 되었다.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팬들 또한 안경 사진에 자이언티를 태그할 정도로 안경은 그를 대변하는 중요한 모티프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자세히 밝히지는 않지만 새 앨범에서도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이 안경이라는 소재가 홍승혜 작가에게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다. 미니멀한 2D의 도면을 후면으로 즉 연장한 듯 보이는 형태의 3D 조각은 실제 렌즈를 도려낸 인형을 쓰고 있으며, 모자의 정수리와 어깨는 노랑색 솜이자는 조명을 받고 있다. 한편 트러스 부분은 모든 입체와 건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그리드도 표현되었다.

"컬러까지 마음에 쏙 드는데요? 펠피스 디자인 스타일이에요." 완성된 작품을 보고 자이언티가 말했다. 기하학적 형태, 화이트 있는 흰색과 색채로 대비되는 70년대 디자인 사조를 언급한 것을 전해 듣고 홍 작가는 자기가 본 자이언티의 헤어칼라와 센스가 역시 틀리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깔깔 웃었다. 디테일은 사라졌지만, 극도로 미니멀한 이 조각을 본 누구나 이 건 자이언티라며 알아냈다.

#### 작가 노트

작품명 'Mr. ZION T'는 'Miss Kim'을 비롯한 자이언티의 고졸하고 낭만적인 음악 세계와 시각 세계에 의도 오마주입니다. 사물을 단순한 원초적 형태로 환원시키는 나의 '유기적 기하학' 작업을 토대로 자이언티의 초상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평면적 2D 그래픽을 3D로 확장해 만든 결과물은 흥미로운 형태의 왜곡을 낳는 동시에 마치 그림이 현실 속으로 걸어나오는 느낌을 줍니다. 자이언티의 도시적이고 복고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그리드 패턴, 색채를 구성했습니다.

### 인소희 + 김기라

김기라 작가는 더블유에서 제안한 아트 프로젝트가 단지 셀레브에 대한 오마주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사이의 동등한 협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배



우 안소희를 그저 닮게 재현하는 대신 자신이 구성하는 상상의 콘셉트를 제시하고, 연기를 요청했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의 대인국 파트처럼 안소희의 실물이 그 모습 그 비율대로 축소되는 설정이다. "세상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절대 고분고분하지 않죠." 영화 <부상행>과 드라마 <인투라지>로 연기하는 모습이 점점 친숙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걸그룹의 귀여운 멤버로 각인되어 있던 그의 이미지를 비틀고 뒤집는 요구였다. 색채를 보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속옷을 입고, 보는 이들의 시선에 지지 않고 대응하는 어떤 여자의 피규어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흔한 태도에 도전한다. 안소희는 이런 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1차 미팅 이후 3D 피규어 제작을 위한 360도 촬영이 이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손끝에서 '한뼉 한뼉' 장인처럼 작품을 완성해가는 고전적 아티스트에 대한 환상을 갖지만 실은 현대 미술 작가들은 도면을 그리고 감리하는 건축가에 가깝다. 실제로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시공사는 따로 있는 것이다. 김기라 작가의 시공사는 말하자면 3D 피규어 스튜디오였다. 피사체를 둘러싸고 총출한 간격으로 배치된 카메라들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동시에 인체를 진행위로 촬영하고, 이 수백 개의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3D 출력물 하게 된다. 김기라 작가의 연출에 따라 안소희가 조금씩 다른 포즈와 표정을 연기했고, 서너 번의 촬영 끝에 오케이 사인이 나왔다. 이 피규어를 길고 좁은 철판에 올려 놓이 설치하는 것으로 김기라 작가의 의도는 완성되었다. 배우 안소희의 또 다른 자기가 관객을 응시하고 있었다.

#### 작가 노트

배우 안소희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3D 프린트 조각은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난간에 서 있습니다. 흔히 소녀에게 기대되는 온순함이나 순수성과는 거리가 먼 히스테릭함을 띠고 선반 위에서 관객을 응시하도록 연출하고 설치했습니다. 위태로운 경계에 선 안소희의 조각은 걸리버의 여행기처럼 초현실적 상황에 직면하거나 자신을 응시하는 또 다른 시선과 조우합니다. 인물을 미니멀하게 피규어로 축소 스케일은 거대한 가치 체계에 맞서 싸우는 작은 다윗의 힘을 연상시킵니다. 약자가 강자와 싸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의 약점을 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